61년만에 한국 찾은 UN참전용사

홍법사 '한반도 평화기원 호국의숨결대회'



부산 홍법사에서는 정전60주년을 맞아 6월 6일 UN참전용사와 가족 12명을 초청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호국의숨결대회를 개최했다.

"배를 타고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보이는 모든 것이 폐허였는데 60년 만에 와보니 눈부신 발전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동료 미군들이 이 땅에 묻혀 있지만 많은 한국인들도 희생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끝이 나야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을 더욱 아름답고 평화롭게 가꾸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Burke, John T. (대령, 82세)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에서는 정전60주년을 맞아 UN참전용사와 가족 12명을 초청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호국의숨결대회를 개최했다. 6월6일 현충일을 맞아 부산 홍법사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61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용사 4명과 그 일가족 8명을 포함 총 12명이 참여했다.

참전용사 UN묘지 참배 등 평화 염원 되새겨

이 자리에는 호국의숨결대회 조직위원장 심산 스님을 비롯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대회 집행위원장 설동근 동명대학교 총장, 운영위원장 정홍섭 전 신라대학교 총장, 정호섭 해군작전사령관, 김세연 국회의원 등 시민·불자 5천 여 명이 함께 먼 이국에서 순직한 UN용사들과 호국선열에 추모했다.

이날 행사는 1부 호국선열 추모대재인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 2부 개회식, 3부 호국의 숨결대회(글짓기, 사생대회, 서예대회)로 진행됐다.

호국의숨결 조직위원장 심산 스님은 "정전 6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부산에서 대대적으로 개최되는 한반도평화기원대법회를 앞두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UN참전용사들을 초청하게 됐다"며 "평화와 자유를 위해 희생한 그들의 숭고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매년 초청해 평화의 정신을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지만, 한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업적만은 없어지지 않는다. 세계평화와 인류 행복을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며, 그 공덕으로 더욱 행복하고 장수하시길 바란다"고 전한 후 "한반도평화대회를 원만 성취해서 7천만 민족이 하나되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중흥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참전 용사들은 6월 4일 범어사(주지 수불)를 방문했다. 한반도평화대회 상임운영위원장 수불 스님은 "오는 9월 한반도평화대회에 보다 많은 분들을 초대해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의 마음을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초대된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은 6월 2일~11일까지 한국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부산 UN묘지 참배, 대한해협 해전이 있었던 부산 앞바다 항해체험, 동명대학교 ROTC 격파와 환영만찬회, 홍법사 토크콘서트 △범어사 방문, 경주 천마총 관광 △울산 현대자동차 시찰, 홈스테이 △부산 홍법사 호국의 숨결대회 △서울 군부대 방문 △한국전쟁기념관 조계종 공식행사, 템플스테이 등을 마치고 11일 출국했다.

부산 박경수지사장

'함께하는세상' 한-라오스 친선교류 나서

반송붓다봉 스님 초청 강연

한국과 라오스가 불교계 주도로 친선 교류협력 강화에 나섰다.

국제불교교류 단체인 '함께하는세상'은 5월 31일 대구 프린호텔에서 라오스 생 쾅주 불교협회장인 '반솜 붓다봉 스님을 초청 특별강연 및 한-라오스 친선교류의 밤 행사를 가졌다.

'함께하는 세상' 이사장 지성 스님은 "부처님의 자리이타 정신으로 세계인이 이웃 되는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나눔의 자비행을 실천하여 나가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서 특강에 나선 라오스의 붓다봉 스님은 "앞으로 한국 불자들과 우정을 다져 나가겠다"며 한국 불교계와의 교류에 기대를 나타냈다.


국제불교교류 단체인 '함께하는세상'은 5월 31일 저녁 대구 프린호텔에서 라오스 생 쾅주 불교협회장인 '반솜 붓다봉 스님을 초청 특별강연 및 한-라오스 친선교류의 밤 행사를 가졌다.

함께하는 세상은 올해부터 라오스 생쾅주 지역의 사찰과 학교 개보수 사업을 3개년 계획으로 진행하는 등 라오스와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교대학 청소년 교육공간으로

문수불교대 한자교실 개강


한자교실 개강에 참여한 신도들

사찰이 인근 지역 초등학교와 함께 한자교육과 심신 교육 프로그램에 나섰다. 대구 북구에 위치한 '문수불교대학' 문수사에서는 6월 1일 초등학생과 학부모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자교실 개강식을 가졌다.

문수불교대학 포교원장 범진 스님은 사찰이 사회의 열린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청소년 교육을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다. 종교지도자인 스님들도 법당을 사회교육 시설로 개방해 관심 있는 청소년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기도도량 맥 이어나가겠다

삼광사 신도회장에 이헌승 국회의원 취임


신도회장 취임식 장면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스님) 제18대 신도회장에 새누리당 이헌승(부산진을) 국회의원이 취임했다.

전임 김석조(부산시의회 의장)회장은 삼광사 고문과 명예회장으로 임명됐다. 이헌승 신임 신도회장은 지난 6월 1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주지 무원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이헌승 신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천태종 중창이념을 받들어 불교의 애국화, 생활화, 대중화에 힘쓰고, 삼광사의 경이로운 역사를 더욱 빛내서 여법한 기도도량의 맥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사찰의 계단은 중요한 경관요소

우리나라 사찰의 계단 가운데에서 불국사의 청운·백운교와 연화·칠보교의 아름다움을 따라 갈만한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종교건축물을 대상으로 생각해봐도 불국사의 계단처럼 조형성과 상징성을 철철 넘치도록 표현하고 있는 대상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불국사가 창건된 것이 751년도이니, 불국사 계단의 나이는 1250살이나 된다. 그 시대에 만든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세련된 디자인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계단에 그렇게 깊은 의미를 부여한 이는 과연 누구였던가!

청운·백운교를 오르면 자하문(紫霞門)을 지나 석가모니부처님이 상주하시는 불국정토로 들어가게 되고, 연화·칠보교로 오르면 안양문(安養門)을 지나 아미타부처님이 상주하시는 극락정토로 들어가게 된다. 그야말로 청운·백운교와 연화·칠보교는 불국토로 들어가는 관문인 셈이다.

계단을 다리(橋)라고 이름붙인 것은 속의 세계에서 성의 세계로 넘어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사찰의 계단가운데에서 교라고 이름붙인 계단이 이곳 말고는 없으니 불국사는 계단마저도 다리라고 상상할 정도의 고차원적인 디자인이 남아있는 곳이며, 그 당시에 활동한 세계적 디자이너들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상상력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래전부터 그러했듯이 최근에도 사찰에서 계단을 만드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사찰이 산지에 자리를 잡다보니 지형의 높낮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단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날 사찰에서 공들여 계단을 만들고 그것에 의미까지도 부여한 것과는 달리 요즘 만들어지는 계단은 디자인적으로 옳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다. 계단이야 건물처럼 뚜렷이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어서 그런지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그러나 사찰에서 중요하지 않은 조형물이 어디에 있고 중요한 조형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부처님 도량을 장엄하는 것이라면 모두 소중한 것이고, 또한 정성들여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석조계단을 만들면서 목조난간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발파석으로 계단 돌을 사용하여 오래된 사찰의 경관과 부조화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새로 만드는 사찰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성을 수용하여 한국사찰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거늘 고찰의 경우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화강석 물갈기한 계단은 고찰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 경상북도 ㅂ사찰



아름다운동행 대한불교조계종

학교건립 불사

극심한 가뭄과 기아, 질병
그리고 부족한 배움의 기회로 인해
아프리카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업학교 건립을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후원참여]
[벽돌 한장] 10,000원
[책상·의자] 50,000원
[땅 한평] 100,000원
[식수대] 300,000원
[컴퓨터] 1,000,000원
[교실 한동] 10,000,000원
[법당(10명)] 50,000,000원

[후원계좌] 농협 301-0112-9859-5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후원문의] www.thenanum.org T. 02-737-9595 F. 02-737-9195
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